

'빨리'보다는 '안전하게' 배달해 주세요! '안전'을 주문하고, '안전'을 배달해 주세요!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외출을 자제하고 배달음식을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나면서 배달 음식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하고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다. 배달문화의 발달은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해주지만, 한편으로는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양면성을 가진다.

글·사진 김창욱(일산서부경찰서 경무계 경위)



배달 오토바이 주행이 주는 불안감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전국 130개 아파트 단지 주민 77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아파트 단지 내 배달 오토바이 주행으로 불안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73.1%였다고 한다. 불안감을 느낀 주행 행태로는 보도에서의 주행(66%), 과속(64.6%), 주정차(60.5%), 곡예주행(41.8%), 경적(38.5%) 순이었다(중복답변 가능). 또한, 배달 오토바이로 인해 교통사고를 경험했거나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을 목격한 경우도 전체의 33.7%였다고 한다. 실제로 오토바이 배달이 증가하면서 덩달아 관련 사고도 늘고 있다. 올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오히려 13.7% 증가한 것이다.

오토바이 사고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

이에 일산서부경찰서는 교통순찰차에 '차량용 자석 홍보판 및 현수막'을 부착, '오토바이 법규위반 집중단속'에 대해 홍보하고,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협업하여 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교통안전공단 등 관련 기관과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배달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교통안전 교육도 실시하고,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전국 경찰관서에서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8월간 주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인도 주행,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등)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였고,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활용하여 이륜차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교통안전 공익제보단'도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 공원길 주행 단속 모습
2. 교통위반행위 단속 모습

강화되면서 배달문화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이륜차 교통사고의 위험과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다.

배려와 양보,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의 지름길

이제 이륜차의 불법행위로 인해 불안과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과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곡예운전을 하며 신속하게 배달하려는 배달원 사이에서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서로의 안전을 위해 한발씩 양보하는 것은 어떨까? 주문한 음식이 조금 늦게 도착하더라도 '안전'을 주문하고, 실적이 조금 덜하더라도 '안전'을 배달하는 것이다. 이륜차를 이용하는 배달원들은 안전모 착용, 교통신호 지키기, 인도나 횡단보도 주행 금지,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배달음식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빨리 배달해 주세요!"라는 말 대신 "안전하게 배달해 주세요!"라고 말한다면,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배달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고 성숙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조금씩 여유를 가져야 할 때이다.